대한불교조계종 국제불교 소식지

世界一花

The Whole World is A Single Flower

불기 2558(2014)년 2월 36호

발행인 총무원 사회부장 보화 | **발행처**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 **편집인** 정범 | **편집장** 정범 | **편집위원** 권대식 윤명규 남춘호 선정화 | **전화** 070-7769-8985 | **편집 · 인쇄** 디자인 수

총무원장 자승스님, 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에 추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제8대 대표회장에 추대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KCRP 제29차 정기총회에서 공동회장단의 추대와 참석 대의원들의 인준으로 대표회장을 맡게 됐다. 신임 대표회장에 추대된 총무원장 스님은 앞으로 2년간 대표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3년간 KCRP 대표회장 소임을 잘 수행해 주신 김희중 전임 회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종교 간 화합과 지역 KCRP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공동회장단을 대표해 김희중 전임 대표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전국 종교인 화합대회, 이웃종교 스테이, 종교평화청년캠프, 예비성직자의 이웃종교 이해하기 등을 2014년 주요 사업으로 의결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1965년 서울에서 한국의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등 6개 종단 지도자들이 모여 대화모임을 가지면서 시작됐다. 이 모임은 1986년 제3차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의 서울 총회를 계기로 국제 종교기구와 유대관계를 갖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로 거듭났다.

한편 총무원장 스님은 KCRP 대표회장으로서 대규모 국제종교행사인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제8차 총회를 주최하게 돼 눈길을 끈다.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제8차 총회는 오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조화 속에 하나 되는 아시아(Unity and Harmony in Asia)'를 주제로 아시아 각국의 종교지도자 500여 명이 참석해 국제사회의 종교 간 평화운동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총회는 아시아 종교청년 평화캠프, 여성대회, 동북아평화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ACRP는 1976년 싱가포르에서의 첫 대회를 시작으로 5년마다 총회를 개최해 여성과 아동 문제, 인권, 종교 간 분쟁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

글_ 불교신문



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 소외지역 '어린이의 꿈' 지원

아프리카 농업기술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동행이 도서 지원과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탄자니아 어린이들의 꿈을 지원한다.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2월부터 2015년 1월31일까지 연중사업으로 탄자니아 소외지역 어린이 꿈성장 프로젝트 '토토(mtoto, 어린이)의 꿈' 사업을 한다.

'토토의 꿈'은 도서관 운영과 도서 지원, 동화구연 등 평소 책을 접하기 어려운 탄자니아 어린이들이 독서를 생활화하며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측정공구 전문 수입 유통업체 경화상사(대표이사 임행준)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경화상사는 지난 2010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아름다운동행을 후원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토토의 꿈' 사업은 도서관 운영과 멘토 · 멘티 활동, 동화구연과 연극교육, 글짓기 대회, 독서올림픽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탄자니아 농업기술학교가 건립되는 지역인 체케니무와송가 지역 내 4개 초등학교, 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도서관 운영과 도서 지원은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탄자니아 어린이들은 한 개의 교재로 한 반 40여 명의 학생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방과 후 별도의 학습공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며, 학교에 비치된 도서가 없어 어린이들이 거의 책을 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름다운동행은 초등학교 4곳에 도서를 보급해 도서관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며,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도서관에서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선후배가 1대1로 놀이와 학습을 함께하는 멘토 · 멘티 활동도 펼친다.

또 학교별로 동화구연과 연극 교육을 시행해 책의 내용을 연극으로 꾸며 4개 학교가 함께하는 연극발표회도 할 예정이며, 연 1회 글짓기 대회와 연간 최다 독서왕을 선발하는 독서올림픽도 개최한다.

르웨예만 탄자니아 무캄바초등학교 교장은 "도서 지원과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토토의 꿈 프로젝트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아름다운동행과 함께 아이들의 꿈이 쑥쑥 자라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글_ 불교신문


〈아름다운동행이 건립하는 탄자니아 농업기술고등학교 인근 무캄바초등학교 학생들〉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www.buddhism.or.kr (한글) www.koreanbuddhism.net (영문)

한국불교세계화를 위한 국제불교 소식지는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불교에 관련된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담겠습니다.
(※ 지면에 소개되는 기사에는 불교신문의 기사를 편집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전법회관 3층 B동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담당_ 선정화 간사)
전화 070-7769-8985 **전송** 02-733-8985 **이메일** kbin8985@naver.com **홈페이지** www.dourim.net/kbin **페이스북**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대불청 · 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음악여행 개최

콘서트 통해 한마음 된 다문화가정

한국 불교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문학과 음악이 만나는 공연이 정기적으로 개최돼 시민과 불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 가정을 위한 콘서트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과 대한불교청년회 참교육문화사업단(단장 하영태)은 1월 26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에서 새해를 맞아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콘서트를 개최했다.

하영태 참교육문화사업단 단장은 "한국사회의 10가구 중 1가구는 다문화가정일 정도로, 우리는 지금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문화 간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마음으로 이웃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 음악 여행에서는 다양한 사람과 생각,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우리의 삶에 다문화 가정이 함께하는 어울림의 자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여성개발원이 진행하는 '불교 여성 다문화 봉사단'을 통해 연결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과 자원봉사자 70여 명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공연에 앞서 정경연 불교여성개발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문화사업단과 참교육문화사업단에서 올해 첫 음악회를 다문화봉사단 가족과 함께해서 뜻깊다."며 "세계가 어우러져 함께 하는 다문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이등병의 편지'로 유명한 김현성과 인디밴드 '레드로우 밴드', 포크록 밴드 '레'를 비롯해 템플스테이 홍보 서포터즈들의 노래공연이 펼쳐졌다. 김현성 씨는 관객들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안도현 시인의 시 '연탄재'에 가락을 넣은 곡과 '무소유의 노래', '이등병의 편지', '나룻배와 행인' 등을 감미로운 기타 선율과 함께 선보였다.

이어서 레드로우 밴드가 어쿠스틱 퍼커션과 기타로 '노란 오토바이', '부담', '비틀즈의 노래들'을 연주해 관객들의 흥을 돋우었으며, 포크록 밴드 '레'는 '나의 노래', '보랏빛향기', '내가 말했잖아요'를 불러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지난 2013년 10월 대한불교청년회에서 주최한 '2013 글로벌 템플스테이 홍보 자원봉사 오리엔테이션(T · P · S)'에 참여했던 외국인 홍보 서포터즈 캐서린과 마리가 출연해 템플스테이에 대한 소개와 함께 노래 공연을 펼쳤다.

베트남에서 온 찬티찬티 씨는 "가족들과 콘서트에 온 것은 처음이다.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익한 공연을 또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온 로엔티녹오안 씨는 "한국 노래라 잘 모르지만, 공연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앞으로는 좀 더 대중적인 노래들을 소개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대한불교청년회 참교육문화사업단은 지난해부터 20대 청년과 경찰관 등 치유가 필요한 특정계층을 위해 공연을 펼쳐왔다. 하영태 단장은 "2014년에도 미혼모 가정과 철도노동자 가족과 같이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계층들과 함께하는 공연들을 준비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글_ 참교육문화사업단 02-738-7920



사)행복한나눔 다문화 · 새터민 청소년들 위한 사업 계획

사단법인 행복한나눔이 다문화 및 새터민 자녀 장학 사업을 전개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한다.

부산 · 울산 · 경남지역 사찰들의 모임인 '전법도량'이 창립한 '행복한나눔(이사장 원허스님, 부산 혜원정사 주지)'은 지난 1월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역점 사업으로 다문화 및 새터민 자녀 장학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고 부처님오신날 등 적절한 시기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명상캠프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들이 학업 또는 부모, 친구와의 관계에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상처를 입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사업이다. 행복한나눔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명상캠프 프로그램을 만들어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줄 계획"이라고 명상캠프 개설 배경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구교실을 개설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설 축구교실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설 시기는 추후 세부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행복한나눔은 지난해 3월 18일 부산 혜원정사 만불전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여 그들의 삶의 질 향상 지원 △ 북한이탈주민, 새터민에게 성공적인 한국사회 조기정착 지원 △지역 간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접촉 기회를 확대하는 문화 복지의 실현에 앞장 △생활 속의 불교문화를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강좌 개설 및 운영 △보다 많은 사람에게 좋은 문화예술을 접하도록 소외계층의 문화 참여 확대 등의 활동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글_ 편집부

국제 포교사회의 SDG법회를 소개합니다

국제 포교사회는 부처님의 법향(法香)을 국내외 외국인과 해외동포들에게 널리 전파하겠다는 원(願)을 세우고 조계종으로부터 정규 품수를 받은 국제포교사들의 모임인 포교단체입니다.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의 '외국인 연등 만들기', 이주노동자와 외국인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시티투어'와 이주민들을 위한 체육대회인 '어울림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 불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계인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행사 외에도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임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 달에 한 번 외국인 스님을 비롯하여 여러 스님을 모시고 내외국인이 함께 갖는 영어 법회입니다. 매월 첫 번째 토요일(때로는 2번째 토요일) 3시, 조계사 앞 템플스테이 홍보관 3층 보현실에서 진행되는 이 법회는 영어로 진행되며 한국스님의 법문은 한국어, 영어 순차 통역으로 제공됩니다. 삼귀의례, 찬불가, 반야심경 봉송으로 시작해서 약 1시간 정도 법문을 들은 후에 10~2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싶은 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불교에 대해 알고 싶으신 외국인들을 환영합니다.

법회의 정식 명칭은 Saturday Dharma Group Ceremony이며 간단하게 SDG법회라고 부릅니다. 2009년 7월에 시작되어 벌써 2014년 3월로 52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상사 국제선원 조실 대봉스님, 주지 대진스님, 헝가리 원광사의 청안스님, 미국인 비구니 원산스님 등 여러 외국인스님께서 세계인들의 눈으로 새롭게 이해되는 가르침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성선원장 월암스님 등 간화선 수행의 선사들로부터도 선수행의 요체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 2013년에도 외국인 스님 7분과 한국인 스님 4분, 이렇게 11분의 스님들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 8일에는 한마음 선원에 계시는 청고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법문 제목은 'The Essence of Mind'(마음의 본성)이었습니다.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의 힘은 무한하다. 그리고 마음을 제대로 관하여 다스려야 한다...'. 쉬운 영어로 마음수행의 방법들을 조목조목 짚어주시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좀 더 많은 분이 이 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외국인스님에게서 직접 듣는 살아있는 영어 법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불기 2558년(2014년)에도 SDG법회는 계속됩니다.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말씀으로 불교의 새로운 시각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불교의 뜻도 깊이 새겨나가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한국불교와 세계가 만나는 이 자리에 부처님의 법을 찾아가는 도반이 모두 함께 하셔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닌 모두, 서로의 언어는 비록 다르더라도 부처님 말씀이라는 큰 말씀 하나로 모두같이 하는 법석(法席)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글_ SDG법회 부장 선지행



사)위드아시아

연예인 팬클럽과 손잡고 캄보디아에 사랑 전달

다양한 연예인 팬클럽들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생일이나 앨범 발매 등의 기념일을 맞아 특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백청강, 그룹 '백퍼센트'의 록현, '씨엔블루', 'B.A.P'의 젤로, '인피니트'의 호야 등과 같은 가수들의 팬클럽이 국제개발협력단체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스님)와 함께 캄보디아 마을에 우물과 어린이 공부방을 기부하는 자비행을 펼쳤다. 연예인을 위한 선물 공세에서 벗어나 좀 더 많은 사람과 기쁨을 공유하기 위해 구호활동을 선택한 것이다. 국내 팬클럽에서 시작된 나눔 활동이 씨엔블루 홍콩 팬클럽과 같은 국내 연예인의 해외 팬클럽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백청강 갤러리', '제스트 록현', '씨엔블루 홍콩 팬클럽', 'B.A.P닷컴' 등의 팬클럽들은 위드아시아를 통해 제대로 된 식수시설이 없어 웅덩이에 고인 물이나 빗물을 받아 섭취하는 캄보디아 최빈곤 지역인 뿌레이벵주(州) 찌삐여이에 우물을 건립하여 생활용수와 식수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그룹 인피니트 호야의 팬 페이지 '원해' 회원들은 위드아시아와 어린이 공부방을 지원하는 후원약정을 체결하고, 오는 12월까지 찌삐여이 마을 공부방을 후원하기로 했다. 2012년 '위대한 탄생'의 우승자 백청강과 '슈퍼스타K' 출신의 정준영의 팬클럽 회원들이 캄보디아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공동우물과 화장실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기부로 인해 우물을 후원받게 된 캄보디아의 한 주민은 "우물을 만든다고 5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지만, 여태껏 만들지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한 우물이 생겨서 꿈을 꾸는 것 같다.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시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감사의 말을 전해왔다.

2012년 자발적인 후원 회원을 결성해 매달 '백청강공부방'을 운영, 지원한 '백청강 갤러리'의 한 팬은 "나눔은 전염이 되는 것 같다. 나눌 줄 아는 가수 백청강 씨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알았다. 공부방에서 꿈을 키워 그 꿈을 이루고, 다른 이들에게 나눔을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소망을 말했다.

그동안 일부 연예인 팬클럽의 쌀 기부가 화제가 됐지만, 해외 아동을 위한 지원은 드문 일이어서 이들의 활동은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이름으로 자선을 실천함으로써 이미지도 향상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것이다. 나눔의 대중화와 성숙한 팬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팬클럽 활동이 앞으로 더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위드아시아는 아시아 지역 빈곤 · 소외계층과 국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국제구호 비영리 법인으로서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인도적인 지원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인도,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 학교 및 공부방을 건립하고, 절대 빈곤 지역 마을에 화장실, 우물 설치와 지붕 개보수, 기초의약품 지원 등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글_ 위드아시아

후원문의_ 법인사무국 051-322-7902

서울사무국 02-3444-8007

❶ 씨엔블루 팬클럽이 후원한 공동 우물
❷ 인피니트 호야 공부방에서 공부 중인 어린이들
❸ 인피니트 호야 팬 페이지에서 후원한 어린이 공부방

광주 길상사 '2014년 새해맞이 아시안 문화 교류 행사' 개최

한국에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유학생, 이주 노동자, 이주여성 등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아시안 문화교류 행사가 1월 30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올해로 5년째인 '광주 거주 아시안과 함께하는 2014년 새해맞이 문화교류 행사'는 명절 동안 한국인들이 가족 · 친지들과 즐겁게 지낼 때, 이국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아시안들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로 음식도 만들어 먹고 각국의 전통문화와 놀이도 체험할 기회이다. 유니버설 문화원, 아시안 프렌드(준), 길상사, 청연한방병원, 국제교류센터, 광주 YMCA, 한국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등이 행사에 참여했다.

첫날 30일은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점심을 함께 한 뒤, 한국 전통 다도를 체험하고 한방 진료를 받았다. 이후 '아시안 이슬람 문화의 이해'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인도네시아 · 방글라데시 음식 만들기, 네팔 · 인도 영화 감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둘째 날은 광산구 하남지구에 위치한 길상사(주지 도제스님)에서 행사가 이어졌는데, 주택가에 자리한 도심사찰로 인근에 공단이 자리해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유동인구가 많고,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사찰이다. 오전에는 스리랑카 · 인도 음식 만들기, 설날 제례 체험이 진행되었고, 오후엔 아시아 각국 전통 게임으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각국의 음식과 문화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간의 우애와 친목을 다졌을 뿐 아니라 그들이 몸담고 사는 한국사회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된 행사였다.

글_ 길상사 주지 도제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국제구호 전문가 양성한다

'청년활동가학교' 개설이어 '국제사회복지지원센터' 목표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이 증가하고 있는 지구촌 재난재해에 대처할 불교계 국제구호활동가 양성을 위한 본격적 채비에 나섰다.

사회복지재단은 1월 20일부터 4일간 전법회관 6층 프로그램실에서 '청년들을 위한 자원활동가학교'를 개설해 운영했다. 불교계 국제구호 인재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국제사회복지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동훈 나눔사업부문 부장이 맡아 10여 년간의 국제경험을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 현장 △국제자원활동 현장 △현장에서의 위기관리 △국제개발의 새로운 흐름 △기후변화와 국제개발 △국제개발 진로 등의 주제로 총 6회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는 국제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청년들을 비롯해 로터스월드, 아이들과미래, 한울안운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는 국내 다양한 기관의 실무자와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해 높아진 불교계 국제사업 위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12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스님은 "조계종은 2004년 남아시아 쓰나미를 계기로 해외구호사업을 시작했고, 2008년 몽골에 '드림센터'를 건립하면서 빈곤지역에서의 상시적인 국제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제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한국불교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해외현장에서 활동할 청년 인재 양성이 적극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청년국제자원활동가학교'와 같은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불교계 국제구호활동 역량을 키우는데 힘쓸 것임을 밝혔다.

사회복지재단은 이번 청년자원활동가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상반기 중에 재단 산하에 국제사회복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면서 불교계 국제구호사업을 지원할 '국제사회복지지원센터'를 출범시켜 국제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계 국제구호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현장에서 활동할 청년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불교 국제개발 NGO들과 협력해 자원활동가 학교와 교계 개발 NGO 실무자 워크숍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글_ 편집부

LA 태고사, 형전 주지스님 취임 법회 봉행

올해는 지난 1994년 미국인 무량스님이 창건한 태고사(Dobongsan Taegosa 8400 Juniper way, Tehachapi, CA 93561)가 개산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여기에 지난 2월 9일 제6대 주지로 형전스님이 취임하여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면서 경사가 겹쳤다. 미 서래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청강스님을 비롯하여 남가주와 북가주,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온 150여 명의 불자가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법당을 가득 메웠다. 형전스님은 주지로서의 공식적인 첫 법문을 통해 태고사 사부대중에게 앞으로의 불사 계획과 법회 운영 지침을 밝혔다.

"20주년을 맞는 때에 주지 소임을 맡게 되어 더욱 뜻이 깊습니다. 열려 있는 공간으로 수행과 정진은 물론이고 시대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태고사를 사랑하는 모든 불자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오랫동안 주지스님으로서 태고사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신도들의 의견을 듣고, 열심히 소임을 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취임 법회 1부는 상단 불공의식으로, 2부에는 평화의 종 타종식, 주지 취임 인사말, 남가주연합합창단 축하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미국인 무량스님의 창건 이야기로 시작한 인사말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한 후, 현재 태고사의 문제점을 얘기하니 모두 공감하면서 몇몇 신도들은 안타까움에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조금씩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태고사가 미주 한인들에게 마음의 고향으로 더욱더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매달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베트남 사찰 지엄사 불자 61명이 한국 전통불교를 경험하기 위해 태고사를 방문하듯이 미국의 한국 전통식 사찰이라는 태고사의 특성을 살려 성지 순례 사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형전스님은 지난 1993년 상주 동해사에서 출가했으며, 비구니 강원 운문사에서 수학,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해외 포교를 위하여 2004년 미국 버클리로 와서 북가주의 육조사와 보리사 주지, 정원사 총무 그리고 북가주연합청년회 TARA와 북가주연합청소년 KAYBA 지도 법사를 역임했다.



▶ 대한불교조계종 도봉산 태고사
8400 Juniper Way, Tehachapi, CA 93561
전화_ +1-661-822-7776
홈페이지_ www.taegosah.org

하와이 무량사, 창립 40주년 앞두고 도약 준비

하와이 무량사(주지 도현스님)가 2015년 사찰 창건 40주년을 앞두고 미국 내 한국불교 포교의 전진 기지로 그 모습을 새롭게 다져 간다. 2014년을 맞아 무량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살행으로 양로원 프로젝트 추진을 이어가고 싯다르타 대학 설립과 함께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하와이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사찰로의 변모도 모색한다.

태평양을 내려다보는 파롤로 계곡의 수려한 산속에 자리한 무량사는 2006년부터 양로원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100만 달러 기금 마련을 위해 신도들은 지난 수년간 인등불 밝히기, 티켓 판매, 사찰에서 직접 만든 된장 간장 판매, 재활용품 모으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십시일반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사찰 인근 주택 6동을 매입한 금액을 갚았을 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100만 달러 모금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와이버그 재단의 150만 달러 매칭펀드와 6채의 주택을 담보로 오하나 퍼시픽은행에 400만 달러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양로원 건설을 위한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2000년부터 추진 중인 하와이 싯다르타 대학은 2017년 정식 개교를 목표로 올해 운영자금 40만 달러 확보를 위해 매진 중이다.

도현스님은 "2015년 사찰 창건 40주년에 즈음해 한인양로원 시설을 완공해서 미주 한인사회가 자랑하는 불교 사찰로 한국의 효 사상을 고취하는 도량으로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통 사찰 문화를 주류사회에 알리는 문화원으로서도 그 역할을 다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하와이를 연계하는 사찰탐방 관광 상품 판매를 통해 한-하와이 사찰문화 교류의 물꼬도 틀 것이라고 계획을 말했다.

도현스님은 "한국사찰의 미국 내 불교 포교 본산으로서의 무량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욱 투명한 사찰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사찰운영 예산을 공개하는 등 운영의 쇄신도 꾀하고 있다.

하와이 무량사 +1-808-735-7858



애리조나 법흥사법흥선원과 투산 서종사 백일기도 회향 및 대보름맞이 법회 봉행

2월 14일 애리조나 법흥사법흥선원(주지 법연스님)은 백일기도 회향 및 정월 대보름맞이 법회를 봉행했다. 불자들은 가까운 곳에서는 2시간, 길게는 6시간씩 운전해서 법회에 동참했다.

주지스님은 동안거 해제 법문에서 "타국 생활 속에서도 잊지 않고 동안거 해제와 명절법회를 봉행하고자 머나먼 거리를 운전하여 절에 오는 불심은 부처님의 정법을 믿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고 말하며 "불국토가 되는 그 날까지 열심히 수행정진 기도하면서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투산 서종사(주지 법연스님)에서도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법회를 갖고 함께 성불도 윷놀이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불심으로 만난 인연인 선우 도반들이 한 가족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어울리는 모습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인다.

부처님 도량에서 부처님의 법을 믿고 따르면서 수행 정진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 또한 흐뭇하다.

애리조나 법흥사법흥선원 +1-480-259-8988

▼ (좌)법회 후 법흥사 신도들과 함께 (우)성불도 윷놀이를 하는 서종사 신도들





뉴욕 원각사, 법타스님 초청 특별법회

뉴욕 원각사(주지 지광스님)는 2월 9일 법타스님을 초청해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법타스님은 "새해에 나이를 하나 더 먹는 것은 육체의 나이도 있지만, 사회적 나이, 정신적 나이, 지혜의 나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불자들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오늘도 부처님같이 생활하고, 내일도 부처님같이 행동하여 부처의 나이를 먹어야 한다."고 법문하셨다.

고국에서 온 스님의 법문을 들은 불자들은 반가운 마음을 전하며, 모두 한마음으로 새해 소망으로 부처가 되고자 발원했다.

법타 큰스님은 1965년 법주사에서 출가해 동국대와 대학원 인도철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세인트루이스 클레이틴 대학에서 '20세기 근세 북한불교에 관한 연구'로 종교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조국평화통일 불교협회를 결성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사업을 펼치고 남북교류에 매진해 왔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불교신문 부사장, 대구불교방송 사장,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2009년 동국대 제11대 정각원장에 취임한 후 정각원 법회의 활성화와 지역포교 발전에 앞장서 오고 있다.

뉴욕 원각사 +1-845-497-2229

시카고 불타사, 무설전 신중탱화 봉불식



시카고 불타사의 신중탱화가 완성되어 2월 9일 무설전에서 봉불식을 거행했다. 이 불사를 위해 신도들은 그동안 정성을 모아왔으며 총 9,200달러가 모금되어 이 중 6,000달러가 이번 불사에 사용되었다. 탱화는 스잔 핸슨의 작품이다.

불타사는 부처님오신날 전야제로 열리는 제8회 불타예술제와 봉축행사 준비에 신중님들의 가호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2월 16일 100일 신중기도를 입재했다.

불타사는 매주 일요일 10시 20분부터 일요 불공 및 법회를 갖고, 성인법회, 청소년 참선법회, 어린이법회가 각각의 법당에서 진행된다. 법회가 끝난 후 오후 시간에 전문 선생님을 모시고 전통풍물놀이 강습, 기공 교실을 운영하는데 불타사 신도뿐만 아니라 시카고 한인들을 위해 개설한 문화 프로그램이다.

또한, 시카고 동방대학교 불교대학 강의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고, 매주 토요일에는 7시부터 9시까지 수선회 참선 수련법회를 갖고 있다. 불교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봉사단체인 연화회 조직이 있어 대내외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카고 불타사 +1-773-286-1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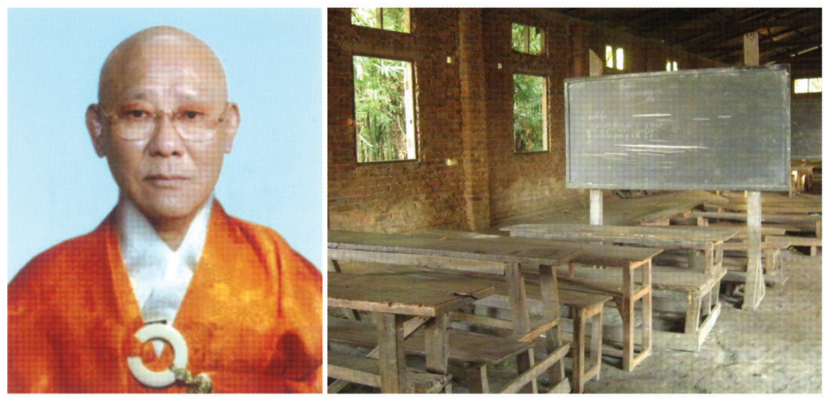
故 신정원 스님 마지막 자비행으로 미얀마 학교 후원

한국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 평생을 전념한 故 신정원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상좌인 상일(祥日)스님과 후임 주지 탁연 스님이 1억6백만 원을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미스의 미얀마 중등 교육 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기부했다. 故 신정원 스님은 일본 오사카에 청광사를 창건하여 청광사 주지를 역임하였으며, 일본 내 한국불교를 포교하기 위해 헌신했다.

후원금이 전달되는 미얀마 빤따노 지역 오보중학교는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오보마을 내 유일한 중등교육 시설이다. 1954년에 설립되어 건물 전체가 붕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책걸상도 부족하여 바닥에 앉아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재학 중인 316명의 학생이 제대로 된 수업을 받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故 신정원 스님의 후원금은 교실 4칸의 신축 건물 1채와 학생과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책걸상 지원에 사용된다. 더프라미스는 올해 11월에 새 교실 건물을 착공하여, 2015년 4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더프라미스 02-735-3119



▲ (좌)故 신정원 스님 (우)후원금이 전달될 예정인 미얀마 빤따노 지역 오보중학교의 모습

북가주 산타클라라 대승사 주지 정윤스님 49재 봉행



북가주 산타클라라 대승사 주지 정윤스님이 입적했다. 정윤스님은 오랜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음에도 지난 1월 19일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법회를 집전하였으나 22일 열반에 든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전해졌다.

대승사는 장례위원회를 결성하고 1월 26일 정윤스님 영결식을 봉행했다. 북가주 사찰의 스님들과 200여 불자들이 참석한 이 날 영결식은 범휴스님이 집전했고, 유족 대표로 여동생 박점숙 씨도 참석했다. 영결식은 김동균 씨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행장보고, 추도사, 연화합창단의 조가 그리고 김미숙 씨의 정윤스님 법문 낭독, 스님의 생전 육성법문과 추모 영상을 함께 감상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정윤스님의 49재는 2재부터 6재까지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에 대승사에서 봉행하고 있으며, 북가주 사찰의 스님들이 차례로 재를 지내기로 했다. 영결식 당일 봉행된 초재는 정원사 지연스님과 돈오스님 그리고 여래사 소원스님이 집전했다.

스님의 법구는 유족과 신도대표의 협의로 특별한 다비식은 생략했고, 습골은 49재 동안은 대승사 법당에 모신 후 대승사 뒤 정원에 모셔진다.

정윤스님은 1967년 해남 대흥사에서 사미계를 수계, 1972년 동화사 강원에서 사집과를 수료했다. 1968년부터 2년간 조계사에서 원주소임을 맡은 바 있으며 이후 1980년 강남 봉은사에서 참선과 계율을 지도하다 도미하여 삼보사와 버클리 Empty Gate Zen Center에서 참선을 지도하였으며, 그 후 필라델피아 원각사 주지, 서니베일 정원사 주지를 역임한 후 199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대승사 창건 주지로서 헌신했다.

후임으로는 스님의 유지에 따라 해남 대흥사 설두스님이 내정되었으며, 현재 종교비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주불교신문 이사장 경암스님은 정윤스님의 입적소식에 "이국땅에서 큰 원력을 갖고 포교하시다 돌아가신 정윤스님의 업적은 길이 남을 것"이라며 "북가주의 한국불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신 스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명복을 빈다."며 애도했다.

글_ 국제포교사 이종권

캘리포니아 대승사 +1-408-247-3277

꿈과 희망이 꿈틀대는 미 대륙으로...

미 동 · 서부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한미 청소년 교류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2011년부터 한국청소년이 미 동 · 서부지역을 방문,
현지 교포학생들과 교류할 뿐만 아니라
매년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미동부지역 청소년이 고국을 방문 시
우리 청소년과의 만남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인연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제4회

한 · 미 청소년 불교문화 연수단 모집



- 일시 2014년 8월 7일 ~ 17일(10박 11일)
- 장소 미국 서부지역(LA, 샌프란시스코, 그랜드캐년 등)
- 대상 열심히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우수 청소년부(주지스님 추천)
- 인원 선착순 20명
- 지도법사 한국 – 정범스님(케이빈 대표), 광원스님(부산 · 울산 · 경남), 도제스님(광주)
  미국 – 형전스님(서부), 지호스님(동부)
- 참가비 한국학생 – 350만원 / 미국학생 – 별도 공지
- 준비물 추후 공지
- 신청기간 2014년 4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홈페이지 www.dourim.net 접속 후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메일송부_ kbin8985@naver.com / 팩스송부_ 02-733-8985
- 신청금 100만원
- 문의 한국 케이빈 선정화 010-5504-8154 / kbin8985@naver.com
  미서부 형전스님 +1-510-717-5181 / ehdgotk@hanmail.net
  미동부 지호스님 +1-718-440-2112 / bodhijiho@gmail.com
- 프로그램 UC버클리, 스탠포드, UCLA 대학 탐방
  그랜드캐년, 태평양 연안, 금문교, 헐리우드 관광
  실리콘밸리, 인텔 뮤지엄, 시빅센터 방문
  LA 태고사, LA 정혜사 등 순례 (※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전법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조계사, 수덕사, 국제선센터, 봉은사, 화계사, 옥천암, 부산 반야선원, 광주 김상사, 뉴욕 불광선원, LA 태고사, LA 정혜사, 미동부청소년 한국문화체험 연수단

타 종교의 유서 깊은 건물이 불교 대학으로 변모

우키아, 미국 캘리포니아 – 우키아 서부 주거지역에 5년 동안 빈 채로 남아 있던 건물 7 동을 한 불교 단체가 인수함에 따라 오랫동안 다른 종교들에 의해 청소년 시설로 사용되던 건물들이 이제 불교대학으로 바뀌게 되었다.

원래 이 건물들은 1883년 도미니카수도원으로 세워졌다. 1903년 예수성심수도원이 카톨릭 어린이들을 위한 일일학교를 시작하고 이듬해인 1904년에 소년들을 위한 고아원을 열었다. 1923년에는 소녀들도 수용했다. 그 후 그리스정교회가 이 시설들을 매입해서 문제 청소년 보호소를 운영했다. 1984년 '삼위일체 청소년봉사회(Trinity Youth Services)'가 이 건물들을 구입하여 문제 청소년들을 위한 기숙학교로 사용하다가 폐교했다.

이 건물들의 새로운 주인이 된 달마 렐름 불교협회(Dharma Realm Buddhist Association)는 세계적인 영적기관이며 교육기관인 '일만 부처님의 도시(The Sagely City of Ten Thousand Buddhas)'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센터는 우키아 교외 탈마지에 700에이커의 광활한 대지위에 자리하고 있다. 협회는 시내지역에 자리한 이 건물들을 탈마지에 있는 대학의 분교로 사용할 예정이다.

달마 렐름 불교협회는 1959년 설립되었으며 부처님의 전도 선언에 따라 '모든 이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기 위해' 경전의 번역, 정법 포교, 윤리교육 증진 등에 전념해왔다. 1974년 주립 병원이었던 탈마지의 건물들을 매입해서 '일만 부처님의 도시'를 설립했다.

이곳의 '일만 부처님 보궁'의 벽에는 만



불도 넘는 황금빛 부처상들이 줄지어 서있다. 창건주인 후아 선사는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등을 연이어 설립해 현재 이 지역 출신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학생들도 교내에서 거주하며 공부하고 있다.

탈마지 학교의 교육과정은 정규 학습과목 외에도 도덕과 영적 발전을 강조한다. 탈마지 센터는 이외에도 문화행사, 강연회, 수련회 등을 제공하며 채식음식점과 책방도 갖추고 있다.

Glenda Anderson, The Press Democrat [2014. 2. 22]

캔버라 불교계의 허브가 될 새 불교센터 신축

캔버라, 호주 – 캔버라의 불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불교센터가 건립된다. 캔버라에서 가장 넓은 주거지역에 들어설 8.5미터 높이의 건물에는 50대의 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5000리터의 물탱크, 긴 회랑, 지붕이 있는 야외 집회장소 등이 들어서고 금빛 테라코타 타일과 아름다운 지붕 장식들이 품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건물들은 현재 캔버라불교센터 앞에 서있는 거대한 금빛 부처상을 둘러싸고 들어서게 되는데 3월말이나 4월 초에 건축이 시작되어 금년 말 문을 열 예정이다. 약 41만 불이 소요될 예정인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센터가 그동안 증가하는 신도들을 수용하기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2006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위에서 본 황금불상, 아래는 현재의 불교센터〉

"행사가 있는 날은 많은 사람들이 문밖에까지 늘어서서 스피커로 법문을 들었습니다. 법회도 오전, 오후 두 번으로 나눠서 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등록된 신도 수만 200명인데 가족까지 포함하면 600명 내지 700명 정도가 센터를 이용하게 되니 현 장소는 너무도 불편하죠."

호주 통계청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2011년 캔버라 인구에서 불교도는 2.6%를 차지한다. 새로 건축될 건물은 명상, 강연, 법회 등으로 활용되며 어린이들을 위한 종교교육도 담당하게 된다.

Emma Kelly, Canberra Times [2014. 2. 11]

오랜 노력 끝에 오픈 데이 갖는 아미타바 센터

마나와투, 뉴질랜드 – 건축 허락을 받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동의서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한 끝에 마침내 아미타바 불교센터(Amitabha Buddhist Centre)가 3월 9일 센터를 공개한다. 이 행사는 그간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을 준 대중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활동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법사인 켈상 데모는 누구나 이 날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특히 명상 때문에 사람들이 오가면서 동네가 번잡해질 수 있다고 센터 설립에 반대했던 주민들은 꼭 와서 자신들의 활동을 지켜봐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 날은 많은 것들을 축하하면서 또 우리가 그동안 해 온 일들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힘든 시기이기도 했지만 공개 청문회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센터가 더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아미타바 불교센터는 2004년 팔머스톤 노스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11세기 티벳 불교 재건에 큰 역할을 했던 인도의 아티샤(982~1054 CE)에 의해 창시된 카담파 종파에 속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생활과 조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JANINE RANKIN, Stuff [2014. 3. 5]

최초의 라틴아메리카 선 대회 개최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최초의 라틴 아메리카 선 회의가 열린다.

"선: 문명의 가교"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강연, 워크숍, 그룹 명상과 법회, 박물관 순례, 예술 활동, 무술시범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행사소개_ www.zenamericadelsur (스페인어)

Buddhadharma [2014. 2. 17]

보로부두르 화산재 제거에 이슬람 학생도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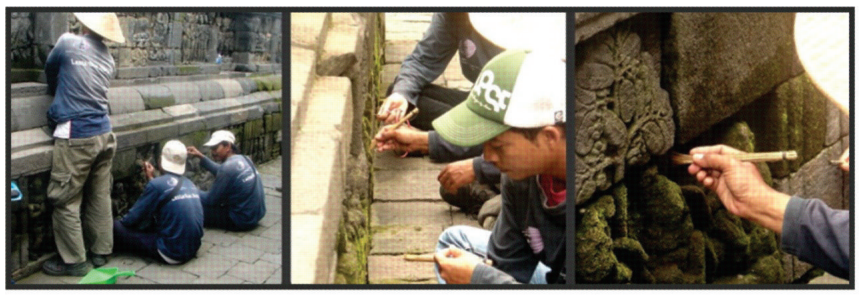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 2월 13일 켈루드 산이 폭발하면서 자갈과 재가 바람을 타고 화산에서 약 280km 떨어진 자바의 보로부두르사원까지 날아갔다. 사원은 화산재로 덮였고 정부는 사찰 보호를 위해 사찰을 폐쇄하고 화산재 제거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낙하산 덮개로 부처상이 안치된 72개의 탑과 거대한 부처상, 기념탑 등을 덮어 화산재를 막았다. 사찰 바닥에도 플라스틱 장판을 깔았다. 화산재 분석 결과 ph 농도가 ph 5 와 ph 6 사이로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인근 멘두트 사원, 파원 사원 등 다른 사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7일내지 10일간에 걸친 청소 및 복원 작업이 필요했다. 많은 인력이 요구되는 이 작업에 관계직원과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발벗고 나섰다. 신도, 호텔 종업원, 관광안내원, 소규모 상안들, 학생, 그리고 관광객 등 매일매일 이백 명에서 삼백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그 가운데에는 자바의 이슬람 기숙학교 학생들도 있었다. 약 50여명의 학생들은 수업이 없는 금요일에 현장을 찾아와서 하루 종일 보로부두르 사원의 화산재를 털어냈다. 학교는 사원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아거나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 사원 근처에서 행상을 하는 부모도 있었다. 2010년에 메라피화산이 폭발했을 때에도 학교는 학생들을 보내 화산재 청소를 돕도록 했었다. 이 날은 특히 인근 도시에서 온 700여명의 불교도들과 스님들도 작업에 참여했다.

"멀리서 도와주러 오신 분들에게 모두 감사드립니다. 국제문화캠프에 참석한 한국인들도 와서 청소를 도와주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화산 폭발 후 5일이 지난 2월 19일에 보로부두르사원은 부분적으로 다시 공개되었다.

Anis Efizudn, ANTARA News [2014. 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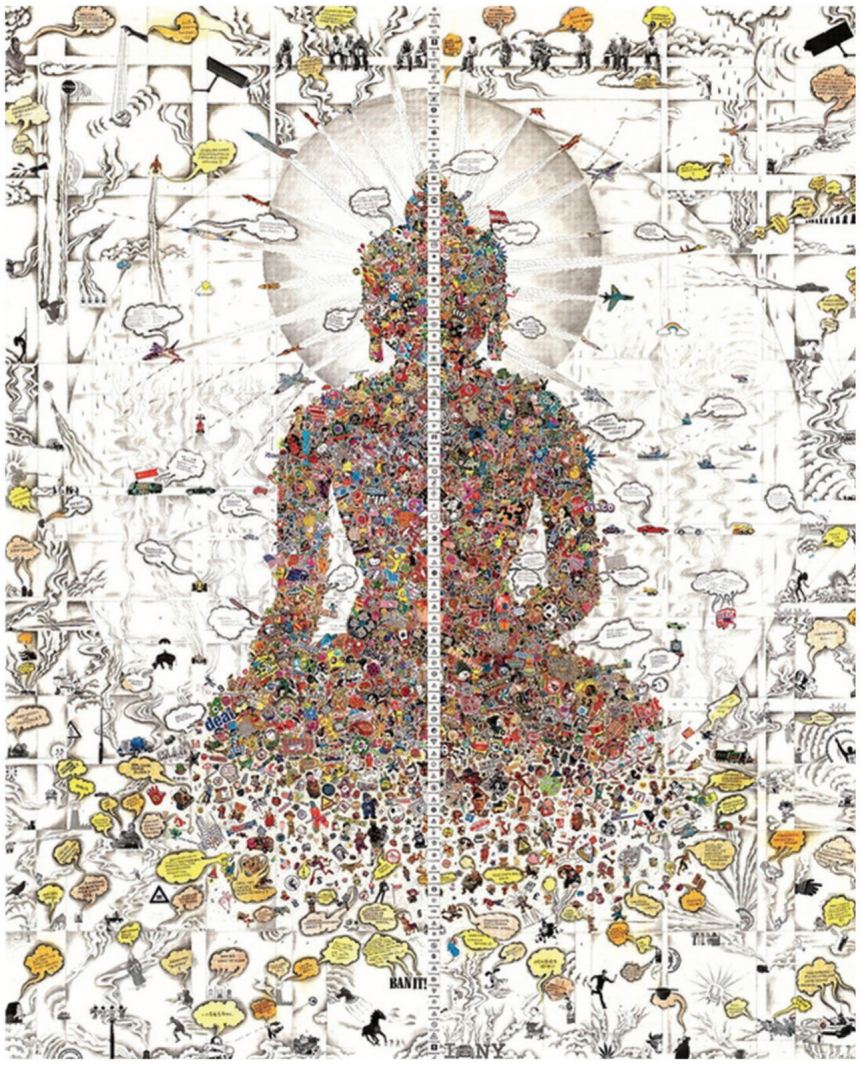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부처의 변용'

뉴욕, 미국 – 라싸에서 출생한 미술가 공카 갸쏘가 그린 '부처: 해체에서 통합으로'가 메트로폴리탄의 '티벳과 인도: 불교 전통과 변용'에서 6월 말까지 전시된다. 박물관 홈페이지의 '전체화면 보기(full screen)'를 클릭해서 커서를 움직이면 영상을 움직일 수도 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이 독특한 작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부처는 밝은 이미지들의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 전체를 한 번에 다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모여 있는 낯익은 사물들이 시선을 잡고 기발한 글과 설명들에 매혹된다. 무리지어 있는 잡다한 사물들에 하나씩 집중하다 보면 전체 틀을 놓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화가의 의도이다. 서로 연관도 없는 잡동사니들에 집중하느라 그 전체 모습을 놓치는 것, 이것은 바로 대량으로 쏟아지는 정보들의 휘황한 빛에 정신을 뺏겨 이 모든 것들의 전체인 부처, 그 존재를 미처 보지 못하는 현실을 경험시키려는 것이다."

Konchog Norbu, Shambhala Sun Space [2014. 2. 24]



17세기의 독특한 불교 타피스트리 작품 전시

도쿄, 일본 –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300년 전의 불교 타피스트리 작품 전시회가 교토의 정토종 사찰에서 열리고 있다. 열반에 든 석가모니부처의 모습을 묘사한 이 작품은 높이 170.6cm, 가로 84.2com이다. 1678년에 만들어진 이 작품은 쿠넨 스님이 일본 전국을 다니며 수집한 머리카락으로 수를 놓은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머리카락이 성스러운 작품에 사용되면 극락에 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기꺼이 머리카락을 바쳤다. 작품 중앙에 옆으로 누워있는 부처님의 머리 부분에는 검은 머리카락이 사용되었으며 시든 사라쌍수 나무는 회색머리카락으로 표현되었다. 쿠넨 스님은 수만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으로 72개의 만달라와 열반탱화를 제작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작품은 8개뿐이다.

몇몇 불교예술작품이 부분적으로 인모(人毛)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이렇듯 머리카락으로만 작품이 구성된 것은 드문 일이다. 이 타피스트리는 1997년 교토의 조간지사(寺)에서 발견되었다.

Japan Daily Press [2014. 2. 10]



사르나트의 캄보디아 사찰, 논란 속 개원

바라나시, 인도 – 사르나트의 건축 제한 구역에 새로 지어진 캄보디아 사찰이 논란에 휩싸인 채 삼엄한 경계 속에 개원했다. 바라나시 개발청은 인도 고고학조사연구소(ASI)가 지정한 문화재 보호지역에 세워진 이 사찰에 대해 이미 해체를 명령했으며 이와 같은 방침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또한 규정을 무시하고 사찰 건축을 묵인한 점에 대해 캄보디아 대사관에도 경고를 보낼 예정이다. 개원식은 인도주재 캄보디아 대사와 캄보디아 왕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언론사 기자조차도 입장이 금지되었다. ASI의 규정조항에 따르면 보호 대상 유물의 반경 100미터 안에는 어떤 건축도 제한되어 있으며 반경 200m 안의 건축은 이의가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한다.

사르나트 소재 ASI의 고위 관리는 건축이 시작될 때부터 관계 기관들이 이미 여러 차례 항의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치안판사는 강한 반대와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찰이 건축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보고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The Times of India [2014. 2. 28]

펑크족 법사가 이끄는 선원의 6주년 맞이

로스앤젤레스, 미국 – 석가모니부처는 깨달음의 길은 반역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 그것은 탐욕, 분노, 망상에 저항하는 전복(顚覆)의 길이다. 그 길은 참여를 통해 자신을 변모시키는 급진적인 길이며, 자유를 찾아 우리 남은 삶에 자유를 부여하는 길이다. 그 길은 바로 급류를 거슬러 오르는, 시류를 역행하는(against the stream) 길이다.



'어갠스트 더 스트림 명상센터(Against the Stream Buddhist Meditation Society, 이하 ATS)'는 미국의 불교 단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조직이다. 법사이며 하드록 펑크족이고 작가이기도 한 노아 레빈이 2008년 2월 20일 동부 헐리우드 지역에 창설한 이래 ATS는 불교 교리를 바탕으로 영적 의식의 고양을 전파하며 번창하는 불교공동체가 되었다. 샌프란시스코와 내쉬빌에 센터가 있고 20개도 넘는 부속 그룹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센터의 모든 강좌들은 보시의 가르침에 따라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ATS는 찾아오는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다.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봉사한다. ATS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단순하다. 창설자인 노아의 어찌 보면 무례하고 무뚝뚝한, 그러면서 솔직한 스타일뿐만 아니라 불교와 명상을 직설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이다. 어떤 종교적 의례도 없고 다른 불교그룹에서 보는 것과 같은 위계서열도 없다. ATS는 하드코어 펑크식의 '네가 직접 해봐.'의 원칙을 고수하며 석가모니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기본 교리에만 집중한다. 이런 단순한 접근법으로 ATS는 불교 수행의 근본 핵심을 배우고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발전했다.

ATS의 전도선언: "우리는 인종, 경제, 성별, 사회, 정치, 종교적 배경과 경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수행을 위해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노아 레빈: 기성세대와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청소년기를 보내며 펑크 록과 마약, 술, 폭력 등에 빠졌으나 결국 마약과 폭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반항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사회적 불의에 대한 분노, 고통 등의 에너지를 불교 수행을 통해 내재적인 지혜와 자비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Dharma Punx', 'Against The Stream', 'The Stream and The Heart of the Revolution' 등의 책을 썼고 '스피리트 록 명상센터' 잭 콘필드에게서 법사로 수련 받았다. 현재 국제적으로 명상 강좌, 워크숍, 안거수련회 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상담심리학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www.againstthestream.org

The Buddhist Channel [2014. 2. 23]

▶ 6~7면 번역은 국제포교사 하양자님이 맡아주었습니다.

바람 안고 달리며 다문화가정 청소년 자신감 충전

낙동강 389km 자전거 도전여행 실시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진오스님)는 김천로터리클럽(회장: 박민규)의 후원으로 관내 다문화가정 청소년 9명과 함께 지난 3월 8일(토)~9일(일) 1박 2일 동안 낙동강 389km 자전거 도전여행을 하였다.

이번 행사는 3월과 4월 낙동강 389km 자전거 도전여행을 위해 1월부터 4월까지 4회기로 진행되는 행사로 다문화 청소년의 몸과 마음의 건강증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도전정신을 일깨우고 종주를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1회기는 1월에 다문화 청소년과 함께 영화 보기를 통해 참여자들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고, 2회기는 2월에 금오랜드 빙상장 체험을 통해 친목 도모 및 기초체력을 측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3회기는 3월 8일~9일 1박 2일 동안 낙동강 183km, 4회기는 4월 12일~13일 1박 2일 동안 206km 라이딩을 통해 낙동강 자전거길 종주에 나선다.

8일 오전 8시 안동댐을 기점으로 시작된 자전거길 도전여행은 김천 관내 다문화가정 청소년 9명, 진오스님, 김천로터리클럽 박민규 회장님 외 회원 3명과 함께 시행되었다.

첫째 날은 안동댐 → 상풍교 → 상주보 → 낙단보까지 가는 일정으로 바람이 많이 불어 라이딩에 어려움이 있어 해가 진 저녁이 되어서야 하루 일정이 끝났다. 첫째 날 일정을 무사히 마친 황보용(김천생명과학고, 2학년) 학생은 "두 번이나 길을 잃어 지치고 힘들었지만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 큰 힘이 되었고 내일도 끝까지 종주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둘째 날은 좋지 않은 날씨 관계로 루트를 수정하여 강정고령보 → 칠곡보 → 구미보 → 낙단보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바람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첫째 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속도를 더욱 올려 예상했던 시간보다 2시간을 앞당겨 마무리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인증센터를 지날 때마다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여행 수첩에 스탬프를 찍으며 예정되었던 183km 라이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작년 12월 섬진강 154km 자전거 도전에 참여했던 정동희(김천중앙중, 3학년) 학생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참여했는데 자전거를 탈 때는 힘들어도 목표지점까지 완주를 하고 나면 뿌듯하다. 인증센터에서 도장 찍는 재미도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참가했던 9명의 청소년은 4월 12일(토)~13(일) 1박 2일 동안 206km 자전거 도전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총 389km의 낙동강 종주를 마치면 김천로터리클럽의 후원으로 1인당 30만 원의 장학금이 주어진다.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김천로터리클럽과 함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전거 도전여행을 기획하여 4대강 종주, 국토 종주를 목표로 매년 이어갈 예정이다.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439-8280



마주협, 외국스님들과의 간담회 개최

지난 3월 4일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는 신임 상임대표 진오스님과 공동대표 도제스님을 모시고 한국에서 이주민포교를 활발히 펼치고 있는 외국스님과 간담회를 가졌다. 몽골,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에서 오신 스님들과 신도회를 구성해 자발적인 신행 활동을 하고 있는 베트남신도회까지 총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다치거나 병이 나면 제대로 치료받기 힘든 여건이 지적되면서, 마주협차원에서 불자 의료인이나 병원을 연계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었다.

외국 스님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주민들의 한국 정착을 돕고, 한국불교와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칼럼]

이주민에 대한 보편적인 포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작년 12월 20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출입국관리법은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모든 외국인에 관련된 법률이다. 그 중 중요한 사항으로는 "사업장 등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신고 또는 제보를 받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될 만한 자를 확보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단속을 위하여 출입할 수 있는 '사업장 등'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한 출입국관리법위반자가 있다는 제보나 의심만 있어도 장소의 제한 없이 어디든지 들어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대로 입법화가 될 경우,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영업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출입국관리법이라고 하여 형법상의 기본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무너뜨려야 할 이유가 없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정편의를 위해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과 헌법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처우는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아직 명확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관용의 정도를 나타낸다. 모든 사람이 이주민에 대해 반드시 호의적이고 자비심을 발현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주민에 대한 탄압이 우리 공동체의 근본인 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그 훼손된 법이 다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사회가 세계화 시대에서 선진국, 일류국가로 거듭나고 아시아시대를 이끌어나갈 리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주민을 보듬고 통합해가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더욱 나은 한국, 세계 속의 일등 한국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